

야구중계 찾다가 제일 답답한 순간이 언제냐면, “오늘 경기 있는 날인가?”부터 막히는 순간이더라. 경기 시작 시간은 또 왜 자꾸 달라 보이는지, 중계 채널은 어디서 봐야 정확한지, 우천 취소나 연기까지는 또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이런 걸 한 번에 정리해두면, 그날 경기 보러 들어가는 동선이 훨씬 편해져.

그래서 이번 글은 딱 목표를 세웠어. 2026년 KBO 정규시즌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MLB는 언제 시작하고 경기 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야구중계사이트를 고를 때 뭘 “검증 기준”으로 삼으면 좋은지, 실사용 관점으로 정리해볼게. 야구중계는 결국 일정과 시간 싸움이라서, 숫자부터 잡고 들어가자.

2026 KBO 정규시즌, 경기수부터 딱 잡히네

KBO 2026 정규시즌은 팀당 144경기, 전체 720경기 체제로 편성돼 있어. 시즌 운영은 단일리그제 구조고, 그래서 “순위 경쟁”이 계속 같은 판 안에서 이어지는 느낌이 강해. 중간에 승부가 갈리는 시점도 있고, 후반에 역전이 나오는 시즌도 있지. 다만 숫자 구조 자체는 단순해. 팀당 144경기를 치른다는 사실이 베이스가 돼버리니까.

개막일도 이미 나와 [야구중계사이트](#) 있어. 2026년 3월 28일 토요일, 그날 KBO가 문을 열어. 그리고 개막전은 상위 5개 팀 홈구장에서 열린다고 안내돼 있어. 이게 은근히 체감이 큰데, 개막전이 “중립”이 아니라 “각 팀 홈”에서 시작하니까, 야구를 보러 가는 사람이든, 야구중계를 보는 사람이든 분위기 포인트가 생기거든. 첫 주부터 “어디가 홈에서 분위기 타는가” 같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쉬운 구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정규시즌 총 경기수”가 아니라, 네가 실제로 보는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경기 일정이 어떻게 쌓이냐는 거야. KBO 공식 일정 페이지는 경기별 시간, 중계 채널, 장소 같은 항목을 제공해. 그래서 야구중계 한눈에 보기를 하려면, 결국 그날의 경기 시간을 기준으로 중계 경로가 맞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

2026 MLB 정규시즌, 162경기과 개막 매치업

MLB 2026 정규시즌은 162경기 체제야. KBO처럼 팀당 경기 수가 똑같이 보이기보다는, MLB는 리그 전체 운영 구조와 시즌 길이가 “162”로 고정돼 있다는 게 핵심이고, 그 긴 호흡 속에서 순위 싸움이 진행돼.

그리고 개막일이 꽤 상징적이야. 2026년 3월 25일 수요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vs 뉴욕 양키스 경기로 시작한다고 MLB가 발표했어. 이 조합이면 야구중계 관심도가 확 올라가는 편이잖아. 실제로 MLB를 mlb중계로 챙겨보는 사람들은, 이런 첫 주 빅매치 같은 걸 기준으로 스트리밍 계획을 짜기도 해.

MLB 일정은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업데이트되고, 순위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안내돼 있어. 그래서 “오늘 경기 있냐”는 질문이 생기면, 굳이 여기저기 떠돌 필요가 줄어들어. 특히 MLB는 시즌이 길어서 중간에 스케줄을 따라가는 게 체력인데, 공식 일정 업데이트를 기준으로 잡아두면 실수가 줄어들어.

KBO와 MLB, 경기수 차이가 시청 패턴을 바꿔

KBO는 팀당 144경기, MLB는 162경기. 숫자만 보면 18경기 차이인데, 이게 실제로는 시청 패턴을 바꿔. KBO는 상대적으로 시즌이 짧게 느껴질 수 있고, MLB는 “더 오래 굴러간다”는 감각이 강해져. 물론 실제 체감은 일정 밀도, 휴식일, 연속 경기 같은 디테일이 더해져서 달라질 수 있지만, 큰 줄기에서 시즌 길이는 확실히 영향을 줘.



그리고 계절 감각도 비슷한 결이 있어. 둘 다 봄에 개막하고 가을에 포스트시즌을 치르는 흐름으로 운영돼. KBO는 3월 말 개막(2026년 3월 28일), MLB도 3월 말 개막(2026년 3월 25일)이라서,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는 “3월 말부터 야구가 본격적으로 달린다”는 인상이 일찍 들어와. 그래서 야구중계사이트를 미리 정해두는 게 생각보다 효율적이야. 시즌 들어가고 나서 갈아타면, 그때부터 리듬이 깨지거든.

한국 시청자는 시간대 환산이 먼저다 (13시간 차이)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는 게 시간 표기야. MLB 일정 표준 표기는 ET로 제공돼. 한국 이용자는 이것 KST로 환산해서 봐야 하는데, 한국과 미국 동부의 시차는 보통 13시간으로 안내돼 있어.

즉, “MLB 시작 시간이 ET 기준으로 찍혀 있다”는 것만 기억해도 절반은 해결돼. 변환을 대충 감으로 때리면 [mlb중계](#) 실수할 때가 생기니까, 가능하면 일정 페이지에서 ET를 확인하고 한국 시간 감각으로 계산해서 들어가는 게 좋아. 야구중계는 시작 직전에 켜면 늦을 때가 많거든. 특히 타석 한 번 오가는 시간이라도 놓치면, 그날은 “내가 좋아하는 순간”이 전부 스킵되는 느낌이 생겨서 더 아쉬워.

야구중계사이트 고를 때, 난 ‘일정 검증’을 1순위로 뒀

어떤 야구중계사이트를 쓰느냐는 취향 요소도 있지만, 결국 “정확한 일정과 실제 방송”이 맞아야 만족도가 유지돼. 공식 일정 페이지를 기준으로, 그날 경기 시간과 중계 채널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KBO 공식 일정 페이지에는 경기별로 TV·RADIO·LOCATION 같은 항목이 포함돼 있고, MLB도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Where to watch” 같은 형태로 확인할 수 있게 안내돼 있어. 이런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부터가 차이가 커.

그래서 야구중계사이트를 고를 때 나는 아래 같은 체크를 먼저 해. 리스트로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기준만 정리하면 실수가 줄어들거든.

- 공식 일정의 경기 시간과 시작 안내가 실제로 같은지 확인하기
- 중계 채널 정보가 제공되는지 확인하기
- 우천 취소나 연기 같은 변동 반영 여부를 같이 보기
- 한국 시간 기준으로든 쉽게 확인 가능한지(환산 과정이 편한지) 체크하기
- 경기 기록이나 결과 업데이트 속도가 실제 시청 리듬을 방해하지 않는지 보기

이건 “사이트가 좋다” “사이트가 나쁘다” 같은 감정 판단이라기보다는, 야구중계 이용에서 생기는 마찰을 줄이려는 운영 방식이야. 야구는 변수가 많아서, 정보를 늦게 주면 결국 시청자가 손해를 보게 돼.

같은 ‘정규시즌’도, 기대하는 구조가 다르다

KBO는 단일리그제이고 팀당 144경기라서, 정규시즌이 길게 느껴질 수도, 상대적으로 짧게 느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정규시즌이 “한 판에서 계속 쌓이는 구조”라는 점이야. 그러다 보니 초반에 기세를 타면, 그게 시즌 중반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초반이 흔들리면 만회 경쟁이 계속 이어져.

MLB는 정규시즌이 162경기이고, 포스트시즌 구조도 방식이 분명해. 2026 순위 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지구 우승팀 상위 2팀은 디비전시리즈로 직행하고, 나머지 4팀은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치르는 포스트시즌 흐름이 안내돼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정규시즌 순위가 단순히 “얼마나 이겼냐”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라운드 진입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mlb중계를 볼 때도 중간 중간 “순위가 왜 중요한지”가 체감으로 더 빨리 붙는 편이야. 같은 승수라도 포스트시즌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정 확인을 ‘날짜 단위’로 잡아야 편하다

야구중계 일정은 “팀별로 하나씩 찾아보는 방식”으로 하면 금방 피곤해져. 대신 날짜 단위로 접근하는 게 좋아. 예를 들어, 토요일이나 일요일처럼 사람이 물리는 날은 경기 시작 시간이 겹치기 쉬운데, 그때 팀을 떠올리기만 하면 우선순위가 흐려져. 그래서 나는 늘 “오늘 몇 시부터 경기가 시작하냐”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팀을 엮는 편이야.

KBO 공식 일정 페이지는 날짜별 경기 구성을 제공하고, 경기별 시간, 중계 채널, 장소까지 같이 보게 되어 있으니, 날짜 단위 확인에 최적화된 느낌이 있어. MLB도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경기 시간과 함께 시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오늘 경기 몇 경기냐”를 먼저 잡기 좋고, ET 표기라서 환산만 손에 익히면 관리가 쉬워.

개막 시즌 초반은 ‘연기 변동’에도 멘탈이 필요해

야구는 날씨가 변수고, 방송도 변수야.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시간과 중계 정보를 제공하긴 하지만, 실시간 변동은 시즌 내내 생겨. 그래서 야구중계사이트를 쓸 때는 “그 사이트가 친절하냐”보다 “변동 반응을 얼마나 빨리 보여주느냐”가 중요해져.

KBO와 MLB 모두 공식 일정 페이지가 기본 기준점 역할을 하기에 좋고, 여기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꾸준히 업데이트되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 특히 우천 취소나 연기 같은 이벤트는, 시작 몇 시간 전부터 체감이 달라지거든. 시작 직전에 확인하면 늦을 수 있으니, 전날이나 당일 오전에 한 번만이라도 경기 시간을 다시 확인해두면 마음이 편해.

야구중계 한눈에 보기, 결국 “시청 루틴”이 답이더라

정리하자면, 2026년 야구중계 흐름은 KBO와 MLB 모두 “공식 일정과 경기 구조”를 기준으로 잡는 게 제일 깔끔해.

KBO는 2026년 3월 28일 개막, 팀당 144경기, 전체 720경기. 단일리그제라 정규시즌에서 순위 경쟁이 한 판에서 계속 이어지는 구조로 이해하면 편해. MLB는 2026년 3월 25일 개막,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vs 뉴욕 양키스로 시작하고, 정규시즌 162경기 체제. 포스트시즌은 지구 우승팀 상위 2팀의 디비전시리즈 직행, 나머지 4팀 와일드카드 시리즈라는 흐름이 안내돼 있어.

여기에 한국 이용자라면 시간대 환산이 붙는다. MLB 일정은 ET로 표기되고, 한국과 미국 동부의 시차는 보통 13시간. 이걸 감으로 때우기보다, 일정 페이지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계산해서 움직이면 스트레스가 확 줄어.

마지막으로 야구중계사이트는 “내가 보기 편한가”만 보지 말고, 공식 일정의 경기 시간과 중계 채널 정보와 맞물리는지, 우천 취소나 연기 같은 변동이 반영되는지까지 체크해보는 걸 추천해. 결국 시즌은 길고, 경기 하나하나가 소소하게 누적되니까. 작은 실수가 계속 쌓이면 시즌 내내 피곤해지거든.

원하면, 네가 주로 보는 팀이랑 경기 보는 시간대(평일 밤 위주인지, 주말 올데이인지), 그리고 한국 시간 기준으로 얼마나 빨리 확인하는지 말해줘. 그러면 KBO와 MLB를 각각 “언제, 어디까지” 확인하면 가장 덜 헛갈리는지, 너한

테 맞춘 루틴으로 딱 정리해줄게.